

# 선진기술 익히기 전념 “고향에 부농의 꿈 심어야죠”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인종기획

##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과 꿈

### <3부> 한국은 또 하나의 고향

18 곡성서 농사일하는 조선족 박형춘 씨

텃 밭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희망을 키우고 있다. 이들은 공장 등 산업단지의 제조업 분야에 주로 종사했던 것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농촌에도 진출, 고령화와 이농현상을 겪고 있는 농촌에 정착해 빈공간을 매우며 한 몫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황등쌀영농조합(대표 황철규·이하 황등단지) 단지 안. 과거 겨울철 한가한 농촌의 풍경은 온데 간데없고 십여 명의 사람들이 쌀을 도정하고, 운반 및 포장 작업을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수도권 지역 대형 마트에 납품할 물량을 맞추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다.

중국 지린(吉林)성 장춘시에서 온 박형춘(35)씨는 고향에서 농업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이곳으로 와 일을 배우며 경험을 쌓고 있다.

고향에서 화력발전소 기계설비 담당으로 10년 동안 근무했던 박씨는 “한국으로 시집은 누나의 권유로 한국에서 들어와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있다”면서 “모내기, 추수, 탈곡, 도정 등 기본적인 농사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것까지 농업과 관련된 사업이 많아 앞으로 배우야 할 게 많다”고 웃으며 말했다.

#### 농업 관련 사업 목표...기술 배우러 한국행

박씨가 일하고 있는 황등단지는 곡성군 100여 농가가 참여해 200ha 면적에서 군 브랜드인 황등쌀을 연간 1만5천가마(40kg기준)를 생산하고 있는 대규모 친환경쌀 전문 생산 농업단지다.

모내기에서부터 관리, 수확, 이송, 도정, 판매까지 모든 과정이 단지 안에서 이뤄지고 전용도정공장에 저온저장고 등 대규모 시설도 갖춰 박씨가 일을 배우는 데 있어 더 없이 좋은 직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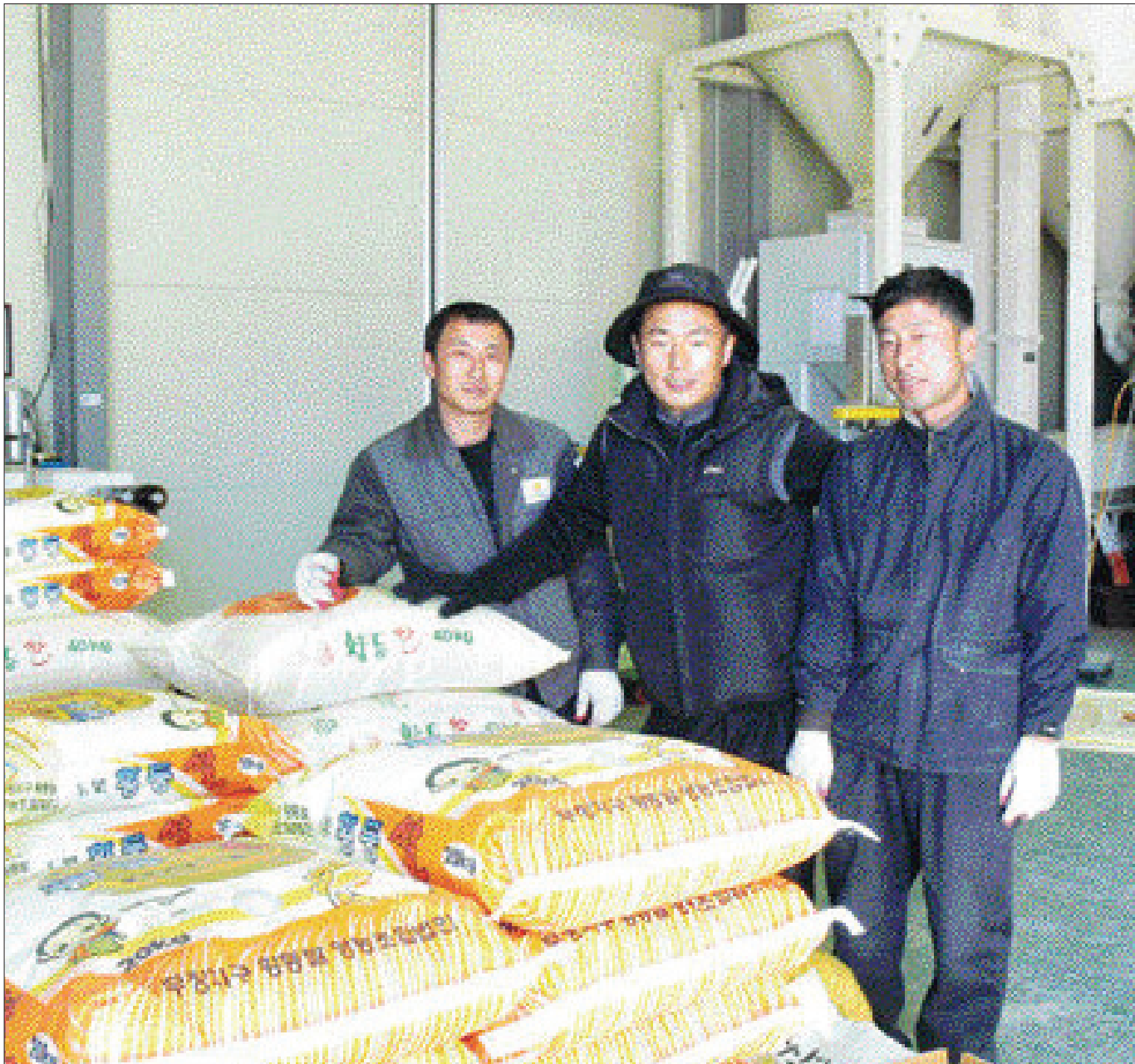
다음 달이면 비자가 만료돼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박씨는 “한국에서 고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사장님과 직원들의 배려 덕분에 힘든지 모르고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고향에 돌아 가면 가족을 데리고 한국으로 나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웃 황등단지에서 박씨와 함께 일을 했던 동료 중국인 박철(35·중국 지린성)씨 역시 가족과 함께 곡성으로 이사 올 준비를 하겠다고 지난주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들 중국인들에게 한국 정착에 대한 꿈을 심어준 사람은 바로 황등쌀영농조합 황철규(45) 대표. 황 대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의 방을 한 칸 내줬다. 같은 민족인데 1년 동안 한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이제는 이들이 가족처럼 느껴진다.

또 황 대표는 이들을 위해 82.6㎡(25평 규모) 크기의 사무실 기능을 갖춘 기숙사도 지을 예정이다.

황 대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든 농사일은 안 하려고 하고 농촌을 떠나려고만 하는데 이 친구들은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일손 부족한 농촌에서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이들 덕분에 농촌에 활기가 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오후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황등쌀영농조합 내 도정공장에서 중국인 박형춘(왼쪽)·김성철(오른쪽)씨와 황철규(가운데) 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모든 일 열심...일손 없는 농촌에 큰 힘”

황 대표 역시 이들과 함께 농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자 서울에서 귀향한 뒤 농업경영인으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의 새로운 꿈은 ‘황등쌀’을 세계적인 쌀로 키워 살맛나는 농촌을 만드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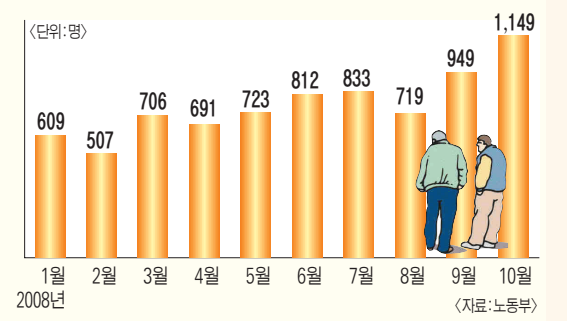
이를 위해 황 대표는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친환경농업을 유통, 가공, 판매까지 그 영역을 확대,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고 있다. 지

난 4년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달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5회 친환경농업평가에서 황등단지가 친환경농업 우수지구로 선정되는 기쁨도 누렸다.

황 대표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지만 자신만의 장점이 있다면 농촌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 같다”면서 “희망과 꿈을 위해 한국은 찾은 이들이 농촌에서 그 꿈과 희망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경영 악화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동 건수



#### 외국인 노동자 이직 늘어

경기침체 여파...올 10월 171% 증가

E-9 노동자 고용사업자 6.6% 감소

최근 경기침체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한 외국인 노동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회사 사정에 따른 퇴직이나 경영상 필요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옮긴 외국인 노동자 수는 지난해 10월 673명에서 올해 10월에는 1천149명으로 171%나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 80% 이상이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경제 한파의 영향으로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부터 생산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12만2천908명에서 올해 15만9천324명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은 지난해 4만4천667개에서 올해 4만1천729개로 6.6% 감소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으로 8천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인 출국당하는 바람에 일손이 모자란 중소 규모 사업장도 최근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불법체류자 고용 밀집지역에 대해 인력 지원전담반을 파견해 해당 사업장의 일자리 실태를 파악한 뒤 국내 인력을 우선 알선하거나 직장을 잃은 합법적 외국인 인력의 고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중소 제조업체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를 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근로자 1명당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다니던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인력이 부족해진 기업에 즉시 알선하고 전 직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도 이른 시일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남성 헤어 기능장학 **大山프리모남녀기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프리모** NAVER

**가발**

초슬림!!

귀여운 표정과 인격을 높여주는 영롱한 볼륨자가 되겠습니다.

문의: 061-837-8888, 061-837-8889, 061-837-8890, 061-837-8891, 061-837-8892, 061-837-8893, 061-837-8894, 061-837-8895, 061-837-8896, 061-837-8897, 061-837-8898, 061-837-8899, 061-837-8900

novita

신뢰할수 있는 10년 세월의 풍부한 경험과 관록의 비데전문기업!

비데프리자

노비타비데프리자

비데프리자 | ☎062-515-1144